

PROCESS CONTROL INSTRUMENTATION

지멘스(주), 최초의 한국형 스마트 시티 & 캠퍼스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인천광역시·인천대학교·포스코건설·지멘스(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 인천대 스마트 캠퍼스 및 인천시 원도심(原都心)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한 사업 추진
- 인천대, 지멘스 그룹 조 케저 회장에게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 수여



14일 인천대학교는 지멘스 그룹 조 케저 회장에게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했다.
인천대 설립 이후 외국 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첫 번째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다.
(왼쪽부터) 조한국 인천대학교 대학원장, 조 케저 지멘스 그룹 회장, 조동성 인천대학교 총장.

디지털화 시대의 혁신을 선도하는 세계적 전기전자 기업, 지멘스의 한국법인 지멘스(주)(대표이사·회장 김종갑 <http://www.siemens.co.kr>)가 한국형 스마트 시티·캠퍼스 구축을 위해 <인천대-인천시-지멘스-포스코> 4자 협력에 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 참여 기관인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인천대학교(

총장 조동성), 포스코건설(사장 한찬진), 지멘스(주)(회장 김종갑)는 이 공동 프로젝트 수행과 관련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해 인천대학교에 Energy Excellence Smart City Lab을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국내 첫 한국형 스마트 시티·캠퍼스 사례가 될 본 사

PROCESS CONTROL INSTRUMENTATION

업은 총 3단계로 나누어 추진한다. 1단계 사업으로는 인천대와 지멘스가 주도하여 인천대 송도 캠퍼스의 에너지 효율화 사업을 추진한다. 2단계 사업에서는 산·학·관 4자가 참여하여 인천대에 저탄소 그린 캠퍼스를 구축하고 인천시 원도심의 스마트 시티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3단계 사업에서는 인천대 캠퍼스에 스마트 기술을 입혀 스마트 캠퍼스를 실현하고, 인천시 원도심의 스마트 시티 확산 사업과 도서와 접경 지역 등 복지 사각 지역에 에너지 자립 기반 스마트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종갑 지멘스(주) 대표이사·회장은 “도시가 회복력을 높이고, 지속 가능하게 개발되려면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끌어내기 위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지멘스(주)는 본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며, 인천광역시가 스마트 시

티로 거듭나 사회적 인프라와 효율적으로 결합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협약일인 9월 14일 인천대학교는 지멘스 그룹 조 케저 회장에게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를 수여하고, 이어서 조 케저 회장은 ‘디지털화, 한국의 미래 설계’를 주제로 특별강연을 했다. 조 케저 지멘스 그룹 회장은 지멘스가 한국 EPC(설계·조달·시공)의 국내의 사업과 협업하고, 한국의 경제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인천대 설립 이후 외국 기업인에게 수여하는 첫 번째 명예 경영학 박사 학위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siemens.co.kr을 참고하면 된다.

지멘스에 대하여

독일 베를린과 뮌헨에 본사를 둔 세계적인 전기전자기업 지멘스는 지난 170년간 뛰어난 엔지니어링 역량과 품질, 혁신, 신뢰성, 글로벌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다. 전 세계 200여 국가에서 35만 1천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지멘스는 전력화, 자동화, 디지털화 영역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자원을 아끼는 친환경 기술의 선도주자인 지멘스는 해상 풍력터빈 분야에서 전 세계 1위이며, 복합화력발전 터빈 분야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또한, 발전소에서 발생된 전력을 공장이나 일반 가정 등에 수송하는 송전을 비롯해 도시 인프라, 자동차 및 산업용 소프트웨어 영역에서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컴퓨터 단층촬영, 자기공명영상시스템과 같은 의료 영상 기기, 연구실용 진단 장비, 클리닉 IT 분야에서도 업계 리더다. 1950년대 한국에 설립된 지멘스(주)는 선진 기술과 글로벌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기업과의 상생을 위한 다양한 사업 협력과 적극적인 투자, 개발 활동에 앞장서 왔으며, 더불어 국내 투자를 확대해온 지멘스는 한국에 전력 및 가스사업본부 아시아 세일즈 지역본부와 아시아·태평양·중동·북아프리카 지역의 발전 솔루션 시장을 관장하는 에너지솔루션즈 아시아지역본부를 설치한 바 있다.

PROCESS CONTROL INSTRUMENTATION

조 케저, 지멘스 그룹 회장
인천대학교 명예 경영학 박사 수여식 연설문
디지털화 시대, 한국의 미래 설계



최초의 외국 기업인으로 인천대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게 된 것을 매우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세계 인구는 곧 80억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의식주를 비롯해 에너지와 의약품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인류는 생태발자국(Ecological Footprint) - 인류가 사는 동안 자연(Nature)에 남긴 영향 - 을 줄여야 한다는 커다란 딜레마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멘스는 한국 도시들의 스마트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포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시티 이니셔티브(Smart City Initiative)이며, 인천시는 한국 최초의 스마트 시티로 거듭나기 위한 도약을 오늘 우리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멘스가 인천광역시·인천대학교·포스코건설과 협업해 한국 도시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힐 수 있어 자랑스럽습니다. 개원식을 가질 인천대학교의 Energy Excellence Smart City Lab은 스마트 캠퍼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천시의 스마트 시티 프로젝트도 효과적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지멘스는 한국의 제조업에 대한 지원도 더욱 강화할 예정입니다. 제조업의 디지털화는 속도(Speed), 효율성(Efficiency), 유연성(Flexibility) 등 3대 경쟁력을 제공합니다.

- 속도란 더 빠르게 생산하거나 생산량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시장 출시 기간을 앞당기는 것도 포함합니다.

PROCESS CONTROL INSTRUMENTATION

디지털 기술은 제품 기획부터 시장 출시에 이르는 시간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 **효율성**은 작업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에너지와 다른 자원들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유연성**은 제조업체가 훨씬 높은 수준의 맞춤화가 가능함을 의미합니다. 소량 생산을 대량생산의 경우와 거의 동일한 효율성으로 생산할 수 있습니다. 수량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조업체는 시장 트렌드에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의 디지털 혁신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는 아래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일자리 창출** : 제조업에서 창출되는 1개의 일자리는 다른 분야에서 최대 2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 **가치 창출** : 한국은 제조업이 국가 GDP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독일의 제조업은 GDP의 약 22%를 차지합니다.
- **혁신 견인** : 전 세계 R&D 투자액의 77%가 제조업에서 이루어집니다.

제조업의 디지털화(Digitalization)는 우리 모두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현상입니다. 사회 전체가 디지털화의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디지털 전환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 가지를 제안해 보겠습니다.

첫째, 디지털화로 인한 이익은 삼성·지멘스·포스코·한솔그룹 등의 대기업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중소 및 중견 기업들도 혜택을 누려야 합니다. 오늘날의 기업들은 고객, 공급자, 연구기관,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이루어진 생태계 안에서 협업합니다. 디지털화는 보다 더 포괄적이고 집약적인 데이터·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여 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둘째, 디지털화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생산합니다. 국가 간 자유로운 데이터 흐름과 데이터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자산 데이터나 개인 정보는 보호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개별 국가와 기업의 보안상의 이익과 핵심 기반 시설의 보호, 네트워크와 데이터 간 접근 및 이들의 사용 간에 적절한 균형이 유지되어야만 합니다.

셋째, 디지털화는 교육과 고용에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킵니다. 제조업의 디지털화는 기존의 일자리를 없애고, 디지털 기술을 요구하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냅니다. 인력의 '자질 재평가'가 점점 중요한 문제로 부각될 것이며, 평생 학습이 보편화될 것입니다. 정부, 기업 및 개인은 이러한 환경에 적응해야 합니다

한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화에 대비하며 이를 관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정부, 한국 기업, 그리고 한국 사회 전체가 변화를 향해 빠르게 전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과 지멘스가 공동으로 희망하는 방향이며, 파트너로서 함께 협력하며 우리의 소망을 이뤄 나가기를 바랍니다.